

大學院教育의 方向과 課題

車 京 守

(서울大 助教授)

I. 韓國社會의 最近 變動

建國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매우 급격한 것이었다. 8·15당시에 1만명도 안되던 高等教育 人口는 건국후 30여년만에 50만명을 넘어 수십배로 증가하였다. 그 취학률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00명당 10명을 넘어섰으며, 학생수는 몇년안에 1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韓國의 大學은 세계의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人材들을 길러 냈고,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발전의 모습은 50년대와 60년대의 교육투자의 덕택이라는 주장도 흔히 듣고 있다. 이제 우리의 大學은 좁은 의미의 지배계층의 형성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자의 양성,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복지사회 실현 등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高等教育의 발전추세 속에서 大學院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오면서 대학원 인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982년도의 문교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38,066명의 일반대학원 학생과 25,260명의 전문대학원 학생이 있어 전체로 볼 때에 169개의 대학원수에 63,326명의 대학원 학생 정원이 있다. 이 중에서 석사과정이 53,269명, 박사과정이 10,057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다.¹⁾ 大學院 學生數의 증가를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의 증가

와 비교해 볼 때에 대학원 학생수의 증가가 훨씬 앞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海外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수와 國內 대학원의 재학생수를 합해 볼 때 國內 대학원의 재학생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현상은 대학원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는 것 같다.

大學院은 학문적인 이론의 연구와 그 교수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 따라서 학문적인 이론이 별로 발달되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이론이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傳統社會에서는 대학원이 발전될 수 없었다. 대학원은 실로 연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산업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이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그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大學院教育의 기능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미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널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韓國社會의 구조적 변동이나 산업화의 추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개략적인 특징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해방후의 혼란기를 거쳐서 1960년대 오면서부터 산업화, 도시화,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교육인구의 급속한 팽창을 보이기 시작했고, 치열한 국제경쟁의 세계 무대 속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차산업 중에서는 섬유나 경공

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전자공업, 중화학공업 등 技術集約的이고 資本集約的인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었다. 농업은 전체 국민소득면에서나 종사하는 인구의 면에서나 현저하게 감소해 갔다.

한편 科學技術의 발전이나 都市化의 속도도 눈부신 것이었다. 해방 당시에 얼마 안되던 도시 인구는 이제 60%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 않아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都市化는 주택, 교통, 교량, 위생시설 등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된다. 産業化나 경제구조의 고도화 등은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자연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전자공학 등 응용과학의 분야에서도 科學技術의 발달은 가장 중요한 사회발전의 바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社會의 산업화 내지 구조적 변동 과정에서는 학문의 연구가 단순한 연구 그 자체보다도 국가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청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知識産業이 국민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고 教育的으로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도 독창적인 탐구력이 크게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현존하는 이론을 이해하고 규범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보다도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 즉 전쟁, 공해, 관료화, 자원고갈,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創意的인 人間이 더 요청되는 것이다. 社會의 構造的變動은 결국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大學院教育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학교육기회의 팽창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II. 大學院教育에 기대되는 役割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韓國社會는 산업화

를 향하여 급격한 변동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교육에 기대되는 역할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國家發展을 위한 대학원교육의 創造的인 役割이다. 전통사회의 고등교육기관은 관료적인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사회의 조직이 단순하고 산업의 형태도 농업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사회에서는 정치조직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社會가 고도로 분화되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모색하기 위하여 創造的인 研究가 필요하게 된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의 오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범죄, 社會組織의 지나친 분화와 관료제에서 오는 非人間化, 핵무기의 발달과 인류의 전멸적인 위기에 대한 공포등의 社會問題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文化的 葛藤과 價値觀의 混亂이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규범은 현대의 산업사회에 맞지 않게 되고 새로운 합리적인 규범은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外來的인 文物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들어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일찌기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大學院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및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社會發展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大學院은 연구기능의 강화로 우리의 사회발전 방향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大學院은 단순한 연구기능 수행 이상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大學院은 전문적인 高級人力의 양성을 위하여 그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기술을 개발할 研究人力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

고 사회의 각종 영역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專門人力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大學院은 이와 같은 고급전문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위한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영향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의학, 교육, 산업, 군사 등 社會의 각 領域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친 專門의인 敎育과 研究가 필요하다. 심지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연구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大學院은 이러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大學의 敎授要員과 研究員 양성도 대학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의 증가는 몇년안에 백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교수요원의 확보문제이다. 한국 高等教育機關의 학생수 증가와 이에 따르는 敎授 需要의 증가 전망은 교수대 학생의 현재의 비율을 유지한다 해도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의 대학교수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敎授 대 學生의 비율을 1대 10 정도로 낮춘다면 이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 교수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研究開發을 위한 人力의 需要도 앞으로 증가해 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중에서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현재 1%미만이다.²⁾ 그러나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國民所得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2% 내지 3%로 증가시킨다면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의 수요도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아질 것이다. 研究員의 양성은 대학원에서 보다는 연구소에서 직접 양성하는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研究所도 대학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科學技術의 發達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원 기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大學院은 現代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바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획하는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을 맡고 있다.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高等教育機關과 研究機關의 교수요원 및 연구인력의 양성도 대학원에 기대되고 있다.

Ⅲ. 大學院敎育의 基本方向과 課題

사회적 구조적 변동과 함께 대학원 교육이 갖는 역할도 새롭게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위에서 서술하였다. 大學院에 기대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大學院敎育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대학원 체제의 확대 개편, 개방성의 증대, 질의 향상, 학교내외에 있어서의 협동체제 강화 등 네가지로 요약하여 서술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몇 가지 시사하고자 한다. 이들 과제들은 토론없이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첫째, 大學院體制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의 고도 산업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능력을 갖춘 專門人力을 도처에서 요구하고 있다. 專門人力이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필요했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高學歷社會에서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대중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大學院의 卒業生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현장에서도 요청되고 있다.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되돌아 와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現職研修의 수단으로서도 大學院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대학원 체제의 개편과 교육기회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시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과 운영
- (2) 대학원 입학제도의 다양화
- (3)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년한의 단축

(4) 석사학위 과정을 논문제와 비논문제의 두 과정으로 분리하는 문제

둘째, 大學院教育에 있어서 開放性의 提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르고 계층적, 지리적 이동이 심하여 국내의 교류가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開放性의 提高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교환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융합하는 가운데에 더 많은 발전들이 있을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自己決定能力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自律性의 증대가 필요하게 된다. 자율성 증대의 필요는 필연적으로 개방성의 증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大學院教育에서도 학과나 학교사이의 폐쇄성이 제거되고 개방성을 증대시키는 여러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책과제를 시사하면 다음과 같다.

(1) 學部와 대학원 사이 및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사이의 개방성 제고

(2) 학문적 풍토의 개방

(3) 대학원 과정과 현직 연수과정의 적절한 연계성 강화

세째, 質的 向上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 高等教育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향상의 문제는 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불가피했던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질적인 문제를 희생해서라도 量的 膨脹이 불가피했던 일면도 있었다. 그러나 질적 수준의 향상없는 양적 팽창은 불성실한 학문적 풍토를 만연시킨다. 특히 大學院은 고도의 연구능력이 요청되는 곳이므로 질적 향상이 없이 대학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質的으로 대학원교육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대학원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와 관련된 과제로서 시사될 수 있다.

(1) 학교간의 질적 격차의 해소

(2)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확대

(3) 학위논문 작성시의 지도교수 제도의 강화 및 연구를 위한 도구과목의 개선

(4) 장기적인 교수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천

네째, 協同體制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開放性의 방향과도 관련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간의 협동체제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안에 있어서도 學科間에 협동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체제의 강화에 의하여 연구시설의 상호이용, 다양한 경험의 제공, 학과의 영세성 극복 등 대학원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책적 과제로 시사한다.

(1) 종합학문적인 연구방법의 강화

(2) 초학과별 협동연구를 위한 교수들의 二重 임명제도의 검토

(3) 학교간의 협동체제 형성

이제 이 글을 끝맺음에 있어 덧붙이고 싶은 말이 몇 마디 있다. 위에서 제시한 대학원교육의 과제들은 그들 자체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산업사회에서의 대학원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교육투자가 확대될 때에 그 과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교육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대학원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政策報告書(policy paper)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註>

- 1) 문교부, 대학원정원표(서울: 문교부, 1982) pp. 3~4.
- 2) 韓國教育開發院, 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78), p. 208.